

January 2012



Tongil Group Newsletter

Tongil Group http://www.tongilgroup.org/eng Contact: info@tongilgroup.com Copyright@ Tongil Group All Rights Reserved



True Parents' Recent Activities













We continue to pray for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n 2012, centered on God and True Parents!

Invitational Seminar for the 36 Blessed Couples

On December 27, 2011, an invitational seminar was held to honor the 36 Blessed Couples. Chairman Kook Jin Moon, Rev. Yeon Ah Lee (Chuksajang), and Mrs. Yeon Ah Choi, the Vice Chairman of Women's Federation for World Peace, were also in attendance. Twenty-three Unification Church elders also gathered to attend this event. The seminar began with a video clip featuring International President and Mrs. Hyung Jin Moon's commemorative visit to North Korea, followed by a video presentation recounting Tongil Foundations' progress in 2011 and fiscal goals for 2012. In addition, the video presentation titled "Strong Korea" addressed Korea's current national security concerns and resolutions. As the seminar concluded, many attendees expressed their inspiration regarding the past year's progress, as well as a renewed sense of strength and hope for 2012.









Invitational Seminar for Regional leaders and Itinerant workers

On December 28th, Chairman Kook Jin Moon and Vice Chairman of Women's Federation for World Peace Yeon Ah Choi held an invitation seminar for regional leaders and itinerant workers from across Korea. Reports from the Tongil Foundation, the Unification Church World Mission Headquarters, and the video presentation "Strong Korea", were presented. Throughout the seminar, Chairman Moon emphasized the importance for Abel nations to gain proper levels of self-defensive military strength capability for keeping peace.









Invitational Seminar for Retired Church Leaders

Later that afternoon, Chairman Kook Jin Moon held an invitational seminar for retired Unification Church leaders. The attendees watched the video presentation featuring International President and Mrs. Hyung Jin Moon's visit to North Korea. Again, the reports on the Tongil Foundation, World Mission Headquarters, and the video "Strong Korea" were presented. Chairman Moon deeply expressed his appreciation to the retired church leaders for their hard work and sacrifices. Their past efforts have truly laid the foundation for current church environments to improve and develop so quickly. As the seminar concluded, many attendees expressed a deep determination to lend their support toward future church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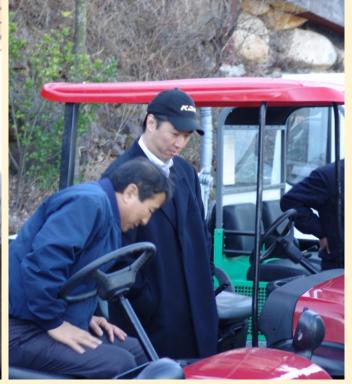


Chairman Kook Jin Moon's Visited to the Shinjeong Development Corporation

On December 19th, Chairman Moon visited the Shinjeong Development Corp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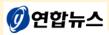




Media Coverage

* International President Hyung Jin Moon also met with Kim Jong Un; and offered his condolences for his father, the late Kim Jong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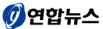
· 뉴스광장 · 990뉴스 · 뉴스12 · 오늘의 경제 · 뉴스5 · 뉴스7 · 뉴스9

〈김정일 死後〉세계평화연합, 김정일 초상화에 헌화

⑦연합뉴스 기사입력 2011-12-25 13:47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24일 문형진 통일교 세계회장(가운데 오른쪽)과 세계평화연합 조의방문단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초상화에 화환을 헌화하고 있다 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2011.12.25



⑦연합뉴스 세계평화연합 조의방문단 평양도착

⑦연합뉴스 기사입력 2011-12-25 13:42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24일 문형진 통일교 세계회장(오른쪽에서 세번 째)과 세계평화연합 조의방문단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 다. 2011.12.25

[김정일 사망]통일교 문형진 방북, 조문

auto NEWSIs.() 기사입력 2011-12-25 13:01



【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문형진(32) 세계회장이 24 일 방북, 평양의 김정일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통일교 문선명(91) 총재의 막내아들인 문 회장은 문 총재와 김일성(1912~1994) 의 만남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평화연합 대표단을 이끌고 지난 9~16일 첫 방북했었다.

20년 전 문 총재와 김일성은 종교자유, 경제협력, 통일방안 등을 논의하고 공동선 언문을 발표했다. 이후 통일교는 대북투자에 적극 나섰고 북에서 평화 자동차, 보 통강 호텔, 세계평화센터 등을 운영 중이다.



문 회장은 첫 방북에서 문 총재의 고향인 평안북도 정주 생가를 방문하고, 평화자 동차 남포공장을 둘러봤다. 문 총재 평양 방문 20돌 기념행사를 평양 세계평화센 터에서 열었다. 15일에는 김영남(83)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만났다.

Other Korean medias:



뉴스 ZUM YAHOO! 미디어 ① 중앙일보









{USA TODAY



AP

Moon Hyung-jin, president of the Unification Church, second from right, carries a wreath to lay in front of a portrait of the late Kim Jong II Saturday at Kim II Sung Square in Pyongyang.

※ Other international medias:



★ Cross-country bicycle trip for protesting Unification church members' kidnapping in Japan

日납치감금 항의 자전거 美대륙횡단 NAVER 뉴스

**NEWSis.() 기사입력 2011-12-21 10:05

NEWSis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일본에서 자행된 조직적 인 납치 감금 행위에 항의하고 피해자를 돕기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두 명의 미 국 대학생이 자전거로 대륙 횡단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지아 귀넷대학의 존 트랜버그(22)와 조슈아 와일드맨(21) 두 명의 젊은이가 애 틀랜타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3700㎞의 사이클 대장정에 나섰다고 '글로벌웹진' 뉴스로(www.newsroh.com)가 20일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가족과 친지, 매 스컴의 취재 속에 출발자인 로렌스빌의 조자아주 의사당 앞에서 힘차게 페달을 밟았다.

출발 현장에 나온 조지아주의 돈젤라 제임스 상원의원은 "1963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정의를 위협하는 불의는 어디에나 있다고 말한 것처럼 일본에서 통일교인 들을 비롯한 소수계 종교인들에 대한 잔혹한 종교 탄압 행위가 두 명의 젊은이에 의해 미 전역에서 관심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며 "그간 이 같은 사실보도에 소홀 했던 세계 각 국의 미디어 역시 두 젊은이의 장정에 주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뚜르 드 코즈(Tour de Cause)'라고 명명된 이번 캠페인을 시작한 트랜버그와 윌 더맨은 각각 미국 아버지와 일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혼혈 2세이다. 이들은 일 본에서 1966년 이래 반세기가 넘도록 무려 4000명의 통일교 신자들과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에 대한 납치 감금이 지속된 반문명적인 범죄를 고발하고 있다.

이들은 수 개월에서 수 년 간 납치 감금당한 채 개종을 강요당하고 고문과 심지 어 성폭행까지 당하는 고통을 겪었다. 이로 인해 현재도 수 백 명이 정신적외상증 후군(PTSD)의 장애로 치료받고 있다. 일본 사법당국은 이들 피해자의 고발과 언 론의 보도 등 사회적 파문에도 불구하고 정식 수사를 외면해 국내외적 비난을 사 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장엔 이들 피해자들을 치료한 일본의 정신과 의사도 참석해 눈길 을 끌었다. 심리학자 가쓰야 스가고시는 "그동안 200여명의 피해자와 상담을 했 는데 정신적 충격으로 장기간의 치료를 받는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레이스와 함께 블로그(http://tourdecause.blogspot.com/)에 매일 소식들을 올 리고 있는 이들은 "혹독한 겨울 추위를 극복하고 험준한 산악도로도 달려야 한 다. 목표를 이루기엔 너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 라는 것을 입증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X Please visit the Tongil Group homepage at www.tongilgroup.org/eng. Thank you.

